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  |  |  |
| --- | --- | --- | --- |
|  | **교과목명** | : | 생활법률 |
|  | **학번** | : | 202234-153799 |
|  | **성명** | : | 한승환 |
|  | **연락처** | : | 010-2862-0200 |

EMB000023580f65 ※ A4용지 편집 사용

**목차**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1.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및 인용 가능성**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및 인용 가능성**
3. **법적 검토 및 판례 분석**
4. **결론**

**참고자료**

*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멀티미디어 강의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 관련 판결 기사(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6)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甲이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하여 甲이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甲은 숙박업소 주인 乙과의 계약을 통해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방을 배정받아 휴식하던 중의 화재로 인해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甲에게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으며, 배우자인 丙이 유일한 유족입니다.

1. **쟁점 사항**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근거**

甲은 乙의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여 그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乙이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거나, 화재 발생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용 가능성**

* 만약 乙이 숙박업소의 화재안전점검 행위를 안일하고 소홀히 하였거나, 화재 발생시 고객의 대피 안내 및 대피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乙이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될 여지가 있지만, 숙박업소로서 요구되는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甲의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근거**

甲의 부인인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로서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가능성**

*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甲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乙이 숙박업소로서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 丙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인정되는 추세는 관련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乙이 본 사건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 검토 및 판례 분석**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乙이 숙박업소 관리자로서 화재 예방과 고객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는 계약에 따른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운영자인 乙이 투숙객인 甲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숙박업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乙이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甲 및 丙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결론**

본 사례에서 甲은 숙박업소인 乙에 대해 화재 예방 및 고객 안전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丙 또한 甲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